

# 주간 통일정세

2014-31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조평통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해체해야"(8/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7일, 서기국 보도에서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꾼 것을 지칭하며 "민심의 규탄에 급해진 국정원이 이름을 교체하는 놀음에 매달렸지만 이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보려는 가소로운 추태"라고 비난함.
  - 조평통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을 거론,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인권유린행위를 해 간첩 사건들을 조작해 논란이 됐다며 "이름 교체 놀음은 인권유린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 공작을 공개적으로 벌어나갈 기도를 드러낸 광대극"이라고 주장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살인과 폭행으로 길들여진 식민지 고용군(8/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육군 28사단 소속 윤 일병사건 관련 '軍에 끌려간 수많은 청년들이 극도의 인간 증오사상과 동족 적대의식에 물젖어 살인과 약탈을 업으로 삼는 야수의 무리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며 '최악의 인권유린, 부패집단인 軍이 처박힐 곳은 역사의 무덤'이라고 왜곡 비난함.
  - 또한 통신은 일병사건 관련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썩을 대로 썩은 괴뢰군 내부의 진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군을 살인마로 길들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로 내모는 한 그런 비극적 현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신문 "남, 넓은 대결이념에서 벗어나야 관계 개선"(8/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대결정책은 파산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당국자들이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을 거론하며 남북대화와 협력을

- 외치고 있지만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문제에는 냉담하다고 주장함.
- 특히 "남조선 당국이 시대착오적인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도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의 뚜렷한 산물"이라고 지적함.

-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의 성노예 범죄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여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駐韓美軍을 상대하는 '기지촌 성매매' 관련 '韓美 당국에 의해 적극 비호 조장되고 있는 성노예 범죄'라고 규정하고 韓美 당국의 '사죄와 책임' 주장 및 '주한미군 철수와 최악 총결산 투쟁'을 선동함.
- 北 노동신문 "남북관계 악화 책임은 南에 있다"(8/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온 민족이 합심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나가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그러나 남측 당국이 "동족의 순결한 의도에 먹칠하고 어떻게 하나 자신들의 반통일책동을 합리화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민족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동족의 제안은 뿌리치고 외세에 매달려 반공화국 공조와 북침전쟁 도발소동에 피눈이 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남북관계를 해치려는 고의적인 책동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北, ARF 외교전 돌입... "南 만나 얘기할 일 없어"(8/9, 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은 9일 남북이 이번 회의 기간에 별도로 접촉할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대표인 리수용 외무상을 수행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9일 '남북이 이번에 접촉하느냐'는 남측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만나서 얘기할 일은 없다"고 말했으며, 또 '아시안게임 참가가 남북

의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회의 준비하느라 바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뉴스는 전함.

## 라. 대남 군사 관계

- 자위적 훈련의 년례화, 정례화는 정당한 권리(8/4,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4일 韓美 합동군사연습(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에 대해 '우리(北)의 핵·미사일 강화 군사훈련 년례화·정례화 맞대응' 재강조 및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도 무사할 수 없다"고 위협함.
  - 평양방송은 4일 韓美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 실시 및 '맞춤형 억제전략' 적용은 "우리(北)에 대한 군사적 도발, 핵전쟁 선전포고"라고 비난함.
- 北 신문 "평화 위해 핵무력 질량적으로 더 강화할 것"(8/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평화는 우리의 핵무력 강화에 있다'란 제목의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미국의 핵 우위가 완전히 깨어져 나갈 때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한반도에서 해마다 주기적으로 정세가 악화하는 원인은 "미국이 계절별로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달 열리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실전으로 번져질 수도 있다"고 우려함.
- 北 "한미군사훈련에 자위적 대응...핵실험도 포함"(8/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은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심사숙고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늘날 조선반도에서 현실적인 도발과 위협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호전적인 핵전략에 의해 산생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최근 UFG에 북한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 각본인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된다는 것이 발표됐으며 "미국의 핵위협과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 로켓 발사는 美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8/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창과 방패의 대결, 로켓 발사훈련의 배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민군이 발사하는 로켓은 화약고 주변에서 불장난하는 호전국가를 각성시키기 위한 경고탄"이라며 매년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함.
  - 조선신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인민군의 로켓 발사훈련은 미국의 오판을 막기 위한 군사적 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인민군은 미국의 도발이 금지선을 넘으면 한치의 편차 없이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 "北 로켓 발사는 美겨냥 북한식 인내전략"(8/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9일 '창과 방패의 대결/ 로켓 발사 훈련의 배경(하)' 제목의 글에서 "조선식 인내전략은 미국이 먼저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고 핵위협을 그만두지 않는 한 조선은 핵 억제력 강화 노선을 추구하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 등 국방력을 다지려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합동군사연습이 미국과 남조선에 있어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면 조선반도 영역을 벗어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벌이라"며 거듭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함.
  
- 北 신문, UFG 중단 거듭 촉구... "강력 대응 뒤따를 것"(8/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UFG 연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며 이같이 밝힘.
  - 특히 신문은 이번 UFG 연습에서 공식 적용되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해 "사실상 북침 작전계획"이라며 "우리에게 핵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UFG 연습이 강행된다면 "조선반도 정세가 최극단으로 치달을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국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본토와 태평양의 미군 기지들이 불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평화애호 노력과 인내심을 잘못 판단하지 말고 도발적인 북침 핵전쟁연습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고 촉구함.

##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는 남북관계 개선 기여"(8/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4일 '북남관계 개선에도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는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더욱 흥성이게 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특히 남한 정부가 아시안게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이번 아시아경기대회는 평화와 친선, 단결을 목적에 둔 체육 활동인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 정부, 인천AG 조추첨 입국 北대표단 지원키로(8/9,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 조추첨을 위해 입국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NOC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통하는 간접방식으로 이달 20~22일 인천에서 열리는 종목별 조추첨 행사와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최근 통보함.
- '백두-한라' 자동차 행진 출정식(8/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라' 자동차 행진 출정식, 8.10 백두산정에서 진행되어 백두산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조선반도종단 자동차 행진단(단장 : 김철성 러시아 「고통련」 위원장)성원들 및 리성건(해외동포사업국 부국장) 등이 참석함.
  - 통신은 우리민족끼리 이념밑에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함.

- 韓美 군부의 용산주둔 미군 평택 이전과 '韓-美 연합사단' 창설문제 협의 관련 "침략자와 매국노의 위험한 공모결탁"이라고 비난(8.4, 중앙방송)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영변 우리늄 농축시설 지속적 확충"(8/6,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국의 핵군축 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6월 30일에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지난 4월 사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원심분리기가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계속 건설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힘.
  - 원심분리기 건물 동쪽에 쌓여 있던 건설자재가 없어졌고, 원심분리기 건물과 북서쪽에 있는 비교적 작은 다른 건물을 연결하는 지붕 설치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ISIS는 설명함.

### 나. 주요 매체 논평

- 자위적 억제력 강화는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8/4,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4일 北 '육·해·항공 및 반항공군·전략군 결의대회(7.27)'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탄두 로켓들을 갖추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美 본토공격 가능' 지속 시사 및 '자위적 억제력 강화 노선과 정책 불변'을 강조함.
- 北, "美 '전략적 인내'는 오판"...정책전환 거듭 촉구(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파산에 처한 대조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미국 내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며 "미국은 편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세에 부합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밝힘.
  -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대조선 압살책동으로 나라의 최고이익이 침해당하는 엄청난 사태하에서 우리를 핵으로 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함.

- 파산에 처한 대조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논평에서 美 對北 '전략적 인내정책' 관련 '공화국은 미국의 핵공갈과 전면공격을 맞받아 대응할 수 있는 핵타격 수단과 정치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으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시간만 보낼수록 강력한 핵억제력은 더욱 정예화 되어 갈 뿐'이라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함.
  
- 미국식 자유의 반동성(8/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미국이 부르짖는 자유는 돈 많은 자들의 자유이고 근로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 말살하는 자본가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 수단'이라며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이 제도화되어 있는 美 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고 비난함.

#### 다. 회담 관련

- 한중 외교장관회담 中발표문, 6자회담 추진에 '무게'(8/9,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최에 앞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외교부장 간의 양자회담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문 형태로 게재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이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함께 수호하고 조속히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윤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함.
  -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 재개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양·다자 간 교류를 지속키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두 장관이 "북핵 불용,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결연한 반대에 대한 공동 인식도 재확인했다"면서 윤 장관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고 소개함.

- ARF 오늘 열려…北미사일·북핵 대화재개 논의(8/10, 연합뉴스)
  - 남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국이 모두 참여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10일 오후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국제컨벤션센터(MICC)에서 개막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특히 각국이 돌아가면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리트리트에서는 6자 회담국을 중심으로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입장과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 라. 대미국

- 北 신문, 美 대북제재법 비난…“공연한 헛수고 말라”(8/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제재몽둥이를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는 글에서 "미국이 대조선 제재와 압박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 미 국회 하원에서 그 무슨 '대북제재 강화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는 놀음을 벌인 것이 대표적 실례"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이 나라들 사이의 호상(상호)관계가 점점 더 심화되는 현시대에 낡은 제재몽둥이를 휘둘러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감각이 무딘 망동"이라고 비난함.

##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 바. 대일본

- “북일 외무상, 10일 미얀마 ARF 때 비공식면담”(8/4, 교도통신)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오는 10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 회의를 계기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선 채로 비공식 접촉을 가질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함.

- 기시다 외무상은 당초 리 외무상과 정식회담을 갖고 일본인 납치 문제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최근 잇달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견지하는 한국과 미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회동의 격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北, 9월상순 납치문제 1차 조사결과 통보”(8/5, 요미우리신문)
  - 지난달 4일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한 북한의 첫 조사결과 보고 시기에 대해 양국 정부가 물밑에서 조율한 결과, 북한 측이 '9월 상순에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신문은 소개하며 북측 조사결과와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이달 하순 이후에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함.
  -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공식 인정한 납북 피해자 12명과 납북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 중 특히 납북 가능성이 농후한 약 30명의 정보를 전달했으며, 먼저 이들 40여 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할 것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함.
- 조선신보 “北 주민들, 북일합의 성과 기대”(8/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신뢰를 쌓고 관계 개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일 합의에 대한 정부기관 관계자, 호텔 종업원, 교사, 공장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평양 시민들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평양 시민들이 북일합의 이행과정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양국 간 관계개선이 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함.
- “일본, 납치조사결과 청취 위한 북일회담 추진”(8/7, NHK)
  - 일본 정부는 9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1차 조사결과를 청취하기 위한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NHK가 7일 보도함.
  - 북일 간 협의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달 첫째 주로 예정된 개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 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NHK는 소개함.
- “北, 외환마진거래 활용해 돈세탁 의혹”(8/8, 산케이신문)
  - 산케이신문은 무허가 FX거래 혐의로 지난달 오사카(大阪)부 경찰 당국에 체포

된 시즈오카(靜岡)현 소재 무역회사 대표 A(41)씨가 가지고 있던 수십개의 고객 명의 계좌가 북한 당국의 자금세탁에 사용된 혐의가 경찰에 포착됐다고 8일 보도함.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기관인 정찰총국이 중국 저장(浙江)성에 차린 위장회사 소속 기술자들이 A씨 측 컴퓨터를 원격 조작해 FX거래를 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함.

##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아세안안보포럼 의장성명 초안 "北미사일 발사 우려"(8/8, 니혼게이자이신문)
  - 8월 10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채택될 의장성명 초안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일 보도함.
  - 반면 북일 간 합의에 따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에 언급, "북일 평양선언(2002년)에 기초한 일본과 북한의 최근 대화를 환영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었다고 신문이 전함.

## 자. 기타 국가

- 리수용 북한 외무상, 5일 베트남 방문(8.4, 베트남소리방송(VOV))
- 北 정부대표단 (단장: 리수용 외무상), 8월 4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도착(8.5, 중앙통신·중앙방송)
- 駐이탈리아 미군 병사 2명의 로므니아 임신부 강간사건 거론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수의 무리, 세계의 특등 범죄집단'이라 비난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살인강도 미군을 제 소굴로 쫓아버려야 한다'고 강조(8.5, 중앙통신·민주조선)
- 러시아-조선반도종단 자동차행진단(단장: 김철성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 겸 러시아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 8월 8일 두만강역 도착(8.8, 중앙통신·중앙방송)

### 3. 대내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천지윤희유공장 시찰...“국제경쟁력 갖춰야”(8/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천지윤희유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통신은 승용차 등의 차량과 각종 기계류에 쓰이는 윤희유 생산공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건설됐다고 밝힘.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장의 분석실, 종합생산지령실, 윤희유작업반, 그리스작업반, 사출작업반 등 여러 시설을 돌아보고 "천지윤희유공장은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된 공장,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실현한 숫자화(디지털화)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함.
  - 이날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이 수행함.
  
- 北 김정은, 평양양말공장 시찰...“경영전략 잘세워야”(8/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양말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여자양말직장, 남자양말직장, 견본실 등을 둘러보고 양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인민들의 기호와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머리를 써야 한다"며 제품의 실용성과 미적 가치에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함.
  - 이번 시찰에는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이 수행함.
  
- 北 김정은, 기계공장서 “사용자 호평받는 제품 만들라”(8/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기계공장을 시찰하면서 사용자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특히 김 제1위원장은 "새 제품 개발과 생산에서 지난 시기의 기준과 대담하게 결별해야 한다"라며 "현실에서 커다란 은(성과)이 나타나고 사용자들 속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함.

- 김 제1위원장의 기계공장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조춘룡 제2경제(군수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영칠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 장창하 등이 동행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베트남 외무장관 회담서 관계증진 합의(8/6, 연합뉴스)
  - 리수용 외무상은 6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하노이 시내의 베트남 정부 영빈관을 찾아 팜 빙 밍 외무장관과 회동, 관계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리 외무상은 북한과 베트남이 1950년 수교 이후 오랜 기간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내년 1월 양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 라오스 국가수석과 총리, 8월 5일 리수용과 담화(8/6, 조선중앙통신)
  - 라오스 국가주석(츨말리 사야손)과 총리(통싱 탐마봉)가 8월 5일 리수용(외무상)과 각각 담화했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또한 통신은 리수용(외무상)과 라오스 외무상(통룬 시슬릿)도 8월 5일 라오스 외무성 청사에서 회담 진행했다고 밝힘.
- 김영남, 스웨덴 대사와 담화(8/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영남과 이임 주북 스웨덴 대사(칼 을로프 안데르손)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했다고 밝힘.
  - 또한 통신은 김영남이 코트디부아르 독립 54주년을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전함.
- "북한, 베트남과 경제협력 희망"(8/8, 베트남뉴스)
  - 베트남뉴스는 7일 하노이를 방문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쯔엥 떤 상 베트남 국가 주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16개 경제특구에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8일 보도함.

- 김영남,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평원군 산림경영소 양묘직장 시찰(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영남 최고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김정일에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설 데 대해 강조했다고 전함.

####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당간부 백두산 답사 띄우기... '혁명전통 결의'(8/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1면에 전국의 당 책임일꾼들로 구성된 백두산지구 혁명사적지 답사행군대가 전날 김일성 주석이 항일운동을 한 양강도 대흥단 일대와 무포속영지를 찾았다고 전함.
  - 신문은 "참가자들은 백두의 행군길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가고 계시는 김정은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깨끗이 걸어갈 의지를 가다듬었다"고 강조함.
- 北 "김일성 자료 발굴" 선전... '백두혈통' 띄우기(8/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자강도 량림군에서 김 주석과 그의 부인인 김정숙을 칭송하는 '구호문헌'(구호나무) 20여 점이 최근 새로 발굴됐다고 보도함.
  - 신문은 "발굴대원들이 량림산을 오르내리며 1천그루가 넘는 껍질이 벗겨진 나무를 찾아냈다"며 이 나무들에서 '천출명장 김 대장 곳곳에 일본군사 족친다',

'조국 동포여, 항일여장수 따라 반일항전 나서라' 등의 글귀가 새겨진 구호나무를 발굴했다고 주장함.

- 北, 또 '속도전' 신조어...이번엔 '김정은 공격정신'(8/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모두다 위대한 백두영장의 공격정신으로 새로운 조선속도 창조에로'란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모두 다 위대한 백두영장의 공격정신으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질풍같이 내달리자"고 강조함.
  - 이어 "원수님(김정은)께 있어서 이 세상에 점령 못 할 요새란 없고 타승 못할 강적도 없다"라며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처럼" 난관을 강행돌파하는 것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혁명방식'이고 '투쟁기질'이라고 주장함.
- 군정치로 마련하신 조국통일의 굳건한 토대(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민족수호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 6.15 통일시대를 펼친 원동력'이라며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수호전, 민족수호전을 연전연승으로 이끌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웠으며, 조국통일위업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것은 거대한 민족사적 업적'이라고 칭송함.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후속 조치

- "주민이 바라는 제품 생산"...北도 이젠 '고객이 왕'(8/3, 노동신문; 조국)
  - 노동신문은 3일 '1980년대처럼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리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비품의 사용자는 '인민'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것을 독려함.

- 사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민을 떠난 소비품 생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야 하며 인민이 좋아하고 인민이 바라는 소비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라고 밝힘.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월간지 '조국'(8월호)은 '경쟁의 기준은 인민들의 평가'라는 글에서 "제품에 대한 평가는 오직 그 요구자이고 직접적 사용자인 대중만이 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한 생산을 강조함.
- 3월5일청년광산에 물리브덴공장 건설 조업식 진행(8/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4일, 3월5일청년광산에 물리브덴공장 건설 조업식이 박도춘(黨 비서)·김춘섭(자강도黨 책임비서)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전함.
    - 통신은 공장건설로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유색금속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게 되었다고 전함.
  - '현실도입의 과학연구 성과' 선전(8/4,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4일, 석탄공업성 (광폭갱도굴진식 무연탄 중박층채탄법) · 농업성 (식물생리활성제 '활력') ·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유압조종체계기술)의 제품들(제13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 출품)의 '현실도입의 과학연구 성과'를 선전함.
    - 노동신문도 4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일꾼들의 7월 30일 현재 "시비년도 화학비료 생산계획 수행성과"를 선전함.
  - "北, 내년 관광객 대상 국제골프대회 금강산서 개최"(8/5, 자유아시아방송(RFA))
    - 4년째 평양에서 '국제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주최해온 영국의 루핀여행사 딜란 해리스 대표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골프대회가 열렸다고 하며 북한 당국이 내년에는 금강산 골프장에서도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힘.
    - 해리스 대표는 올해 평양 골프대회 참가자 수가 예년보다 적었다고 하며 이번 대회에 영국, 중국,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 8개국에서 온 선수 15명이 참가했다고 RFA가 전함.

- 北, 경기장·선수복에 '인공기 형상화' 눈길(8/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 5일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의 리모델링 공사 상황을 소개하며 "관람의자는 공화국기를 형상하여 청색과 흰색, 붉은색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에 의하면 공사에 참가한 군관 전창수는 "경기장 관람석 전체가 한 폭의 공화국기를 펼쳐놓은 것처럼 우아하고 이채롭게 형성되고 있다"고 자랑함.
  
- "北, 軍 영화촬영소까지 외국인 관광객에 개방"(8/6, 연합뉴스)
  - 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본사를 둔 고려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평양에 있는 4·25예술영화촬영소를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군 산하 영화촬영소까지 외국인들에게 개방한 것은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함.
  
- 이과대학 물리학부, 에너지 절약형 화실 개발 선전(8/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이과대학 물리학부 연구집단이 '에너지 절약형 화실(※火室, 보일러 등 뿜감을 때어 증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개발했으며 "석탄 30~40% 절약 등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선전함.
  
- "백두산 북한지역 관광코스, 중국인에 인기"(8/8, 연변일보)
  - 백두산의 북한 쪽 지역인 동파(東坡) 코스 관광이 최근 중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가 8일 보도함.
  - 이 코스가 다시 개통된 지난 6월 11일 이후 총 800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했고 1박 2일 또는 2박 3일 관광단이 매주 한 차례 이상 꾸준히 출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함.

#### 다. 경제 상황

- 스위스 대북사업가 "北 김정은 체제는 실용적"(8/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스위스 기업이 합작한 '평스제약합영회사'의 펠릭스 앵트 회장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 기반을 둔 'WNUR'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경제개혁' 추진을 계기로 더욱 실용적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앵트 회장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도층은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북한 사회 전체가 외부정보의 유입을 통한 변화를 겪으면서 지도층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고 말함.

## 라. 대외 경제관계

- 北 TV 화면 속 20억대 벤츠...제재 실효 논란(8/5, 텔레그래프)
  -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5일(현지시간) "초호화급 벤츠 방탄 리무진이 북한 군사 퍼레이드에서 2대나 목격됐다"면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함.
  - 주문형 리무진 전문가인 세드릭 라크르와는 신문에 "자그마치 12기통 엔진으로 방탄 장갑의 중량을 너끈히 견딜 수 있는 메르세데스 S 600 시리즈 차량이 맞는 것 같다"면서 "대당 가격은 장갑 수준에 따라 최고 120만 파운드(약 20억8천만원)를 호가한다"고 말함.
- 美 단체, 올해 상반기 대북지원 크게 늘어(8/7,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 미국 상무부의 통계를 인용, 올해 1~6월 미국이 북한에 반출한 교역액이 1천980만 달러이고 통계상으로는 수출이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이라고 전함.
  - VOA는 이는 작년 상반기 미국의 대북 수출액 500만 달러보다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밝힘.
- "러시아 기업대표단, 올가을 북한 경제개발구 시찰"(8/7,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지난 1일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RFA는 갈루쉬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기업대표단이 올해 가을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시찰할 계획이라며 "러시아 기업이 북한의 경제개발구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독일 구호단체, 북한과 홍역예방 지원 논의"(8/7, 미국의소리(VOA))
  - 카리타스의 라인하르트 버크너 아시아담당 소장은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서 홍역 예방과 퇴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보건성과 논의하고 있다"고 7일 밝힘.
  -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도 카리타스가 북한 당국과 홍역 예방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예방 활동이 진행되면 북한 주민이 정기적으로 (홍역) 예방주사를 맞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올 상반기 평양에 총 "59만 5,5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새로 뿌리내리고 수확 정보의 새 품종 잔디밭 조성" 등 '평양시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 선전(8.4, 중앙통신)
- 제13차 전국 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7.29~8.5) 폐막식, 8월 5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8.5, 중앙통신·중앙방송)
- 고산과수농장 종업원들, 8월 5일 '김정은 지시' 관철 결기모임 진행(8.5, 중앙방송)
-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현지지도표식비', 만경대애국농창(알루미늄 새시)공장과 함흥편직공장·평양양말공장에 건립(8.6,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에서 '철도운수의 정보화 추진과 지열난방용 전동체계 개발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北에서 철도운수의 과학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전(8.6, 중앙통신)
- 조선건축가동맹 대표단(단장 : 심영학 부위원장), 8월 7일 '국제 건축가동맹 제26차 총회(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참석차 평양 출발(8.7,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전국 8월 3일 인민생활 소비품전시회(8.1~8, 인민문화공전) 진행(8.8, 중앙통신)
- 각지의 휴양소들(온포휴양소·묘양산휴양소·석암휴양소 등)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꾸며졌다'고 보도(8.9, 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中당국, 北접경서 대북지원 활동한 한국계 미국인 조사"(8/8,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북한과 접경한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투먼(圖門)에서 기독교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펼쳐온 한국계 미국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7월 27일(현지시간) 밝혔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 국적자인 피터 한 씨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출국을 금지당한 채 3주간 심문을 받고 있으며 그의 은행계좌도 동결된 상태라고 전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원수님 모습에 매혹"...北 김정은 '패기머리' 인기(8/4, 연합뉴스; 조국)
  - '조국'(8월호)은 '최근 유행되는 젊은이들의 머리단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젊은 층 사이에서 "뒷머리와 옆머리를 높이 올려 깎고 웃머리를 빗어 넘긴"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소개함.
  - 김일성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리정철(27) 씨는 이 잡지와 인터뷰에서 "젊고 활력에 넘치신 원수님의 모습에 완전히 매혹됐다"며 "외모부터 원수님을 그대로 닮고 싶다"고 말함.
- 북한도 피서철 워터파크·해수욕장 '초만원'(8/4, 조선중앙TV)
  - 지난해 10월 개장한 이후 첫 여름철을 맞은 문수물놀이장은 평양시민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온 피서객으로 북적거리고 있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전함.

- 중앙TV는 4일 창광원 실내수영장과 물놀이장에도 매일 3천 명의 시민이 찾아온다며 "삼복철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손님들로 초만원"이라고 소개함.

■ 北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촉각... "전 세계에 빨간등"(8/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빨간등이 켜진 에볼라 공포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지적하며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바이러스)가 그 대표적 실례"라고 강조함.
- 신문은 이어 올해 3월부터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다고 하며 "최근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경보가 내려지고 있으며 에볼라 공포증이 서아프리카로부터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함.

■ "4시 하교, 학생이 교사 평가"...북한은 교육실험 중(8/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4면 전체에 과학영재학교인 평안남도 평성시 소재 김정숙제1중학교 리영철 교장의 교육개혁 성과를 대대적으로 소개함.
- 리 교장은 일부 교사의 반대 의견에도 솔선수범으로 학생들의 평가와 의견을 받아들이며 교사평가제를 강행했다고 신문이 전함.

■ 러-한반도 종주 고려인 자동차 랠리팀 북한 도착(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인 김철성 러시아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조선반도종단 자동차행진단이 8일 두만강역에 도착했다"고 짚막하게 보도함.

- 전승컵 전국 태권도강자경기대회 폐막식(7.28~8.5), 8월 5일 함흥에서 진행(8.5, 중앙통신)
- 北, 송도원 국제소년야영에 참가한 여러 나라 학생소년 야영생들이 희열과 낭만으로 가득차 즐거운 야영의 날을 보내고 있다고 선전(8.5, 중앙방송)
- 北 여자축구팀, '2014 FIFA U-20 여자월드컵(캐나다)' 조별예선전에서 핀란드에 2:1 가나에 3:0 승리 보도(8.9, 중앙통신)
- 평안북도, 새학기를 맞으며 교육지원전시회 진행(8.9, 중앙방송)

- 「청년절(8.28)」 즈음 '햇불컵 축구경기(13개 남자축구팀 참가)', 8월 10일(8.28일까지 진행) 김일성경기장에서 시작(8.10, 중앙통신·중앙방송)
- 강원도에서 道 실험기구 및 교편물·교육지원 전시회(7백 80여종·1만 1,500여종의 모의실험실습 프로그램 등 전시) 진행(8.10, 평양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南·北·中·美·日 외교수장 집결...북핵 외교전 스타트(8/8, 연합뉴스)
  - 오는 10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러시아를 제외한 6자 회담국 외교 수장이 모두 모여 ARF를 무대로 한 북핵 외교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윤 장관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한일양자 회담, 한미양자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및 핵능력 고도화 차단을 위한 북핵 6자 회담 성사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중국, 몽골, 미얀마 등과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핵개발의 원인은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동시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짐.
  
- 한미일, '北추가핵실험·미사일도발 강력대응' 공감(8/10, 연합뉴스)
  -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미얀마 네피도에서 10일 오전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국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3국 공조체제에서의 한일 양국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현재의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간의 협력 필요성은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 대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위협하는 상황이고 을지훈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함.
  
- 남북 외교수장, ARF서 조우...유의미한 대화는 없어(8/10,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9일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

보포럼(ARF) 환영 만찬에서 만났으나 인사 이상의 유의미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이번 ARF에서 남북 외교수장 간 만남은 다자회의 석상에 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 이상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리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나. 미·북관계

- 美 단체, 올해 상반기 대북지원 크게 늘어(8/7, 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 미국 상무부의 통계를 인용하여 올해 1~6월 미국이 북한에 반출한 교역액이 작년 상반기 미국의 대북 수출액 500만 달러보다 3배 정도 늘어난 1천 980만 달러라고 전함.
  - 또 방송은 총 교역액 중 99%인 1천 952만 달러가 '민간기구가 구호·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에 해당되며 방사선 의료기기(15만 3천 달러)와 수술용 의료기기(3만 달러)도 제공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함.
  - 미국이 대북압박 정책 유지 및 추가 제재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국 본토 타격을 위협하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 성격의 민간 지원은 증가하고 있어 그 배경과 추이가 주목됨.
- 미 B-2 폭격기 3기 괌기지로 작전이동(8/8, 연합뉴스)
  - 미 태평양공군(PACAF)은 6일(현지시간), "미국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있던 B-2 폭격기 3대를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고 밝힘.
  - 미 공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B-2 폭격기를 배치해 왔지만, 이번 배치는 앞서 북한이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밝힌 핵실험 가능성과 미 본토 타격 언급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북한은 지난해 3차 핵실험 직후 시행된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당시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52와 B-2등이 한반도에 전개되자 '대북침략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

#### 다. 중·북관계

- "중국군 건군기념식에 북한무관 전원 불참" <소식통>(8/4, 연합뉴스)
  - 북중 관계에 밝은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4일, "지난 1일 저녁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87주년 기념식에 북한 국방무관과 군무관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북한 측의 하위급 보좌관 1~2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이번 사례를 북중 관계의 심각한 조짐으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일수도 있다고 전했지만, 베이징 외교가는 중국정부의 대북제재 동참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북중 양측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함.

#### 라. 일·북관계

- "북일 외무상, 10일 미얀마 ARF 때 비공식면담" <교도>(8/4,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는 10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비공식 접촉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함.
  - 기시다 외무상은 당초 리수용 외무상과 정식회담을 갖고 일본인 납치문제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잇달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견지하는 한국과 미국을 고려해 회동의 격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북일 비공식 접촉이 성사되면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한 북측의 조사진행 상황을 묻고 그 일정에 맞춰 조사결과 검증요원을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교도는 보도함.

- "北, 9월 상순 납치문제 1차 조사결과 통보" <요미우리>(8/5, 연합뉴스)
  - 요미우리 신문은 5일, 북한이 납치문제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다음 달 상순 일본에 통보할 전망이며, 북측의 조사결과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달 하순 이후에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함.
  -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납북 피해자 12명과 납북됐을 가능성이 높은 '특정 실종자' 중 약 30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으며, 먼저 이들 40여 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할 것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함.
  -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공식 규정된 17명 중에서 이미 귀환한 5명을 제외한 12명의 송환을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12명 중 요코타 메구미 씨를 비롯해 8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음.

#### 마. 러·북관계

- "러시아 기업대표단, 올 가을 북한 경제개발구 시찰"(8/7,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7일,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지난 1일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특히 갈루쉬카 장관은 올해 가을 러시아 기업대표단이 북한이 작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한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시찰할 예정이며 러시아 기업이 북한의 경제개발구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갈루쉬카 장관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투자자 보호법을 정비하고 러시아 기업인에 대한 장기비자 발급 등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김 대사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함.

#### 바. 기타

- 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지속 발사땀 상응한 조치"(8/6,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음.

- 특히 회의에서 일부 이사국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유엔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함으로써 9월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짐.
- 또한 안보리는 불법으로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실소유자인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美일각, 때 아닌 '주한미군 철수론'...고립주의 고개드나(8/8, 연합뉴스)
  - 최근 미국의 재정여건 악화와 변화된 전략환경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본토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미국 워싱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현직 육군소령 크리스토퍼 리 소령은 "한국은 스스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검증된 동맹이며 군이 재래식 병력이 없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지력은 북한으로부터의 견고한 방위를 보증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고 전작권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워싱턴 외교가와 안보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주장은 북한 핵·미사일의 위험성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으며,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혹은 감축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한·미, 전작권 전환 2020년 이후 연기 가닥잡을 듯(8/6, 연합뉴스)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워싱턴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구축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로 예측했으며, 특히 '킬 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함.
- 한·미양국은 다음 달 중으로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회(KIDD)를 열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확정된 뒤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한미, '北도발 단호대응·비핵화 진전노력'에 공감(8/10, 연합뉴스)

- 9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미얀마 네피도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 밝힘.
- 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설명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고, 이에 케리 장관은 한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짐.
- 케리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러시아의 행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했고, 윤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여러 가지 국제이슈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짐.

## 나. 한·중 관계

■ 한중외교장관회담 中 발표문, 6자회담 추진에 '무계'(8/10, 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미얀마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네피도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논의를 나눴으나 양국 간 온도차를 확인함.
- 중국 외교부는 윤 장관이 "한국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한테 반해 한국 외교부는 윤 장관이 6자회담을 언급했는지 소개하지 않음.

- 또한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타결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위한 소통을 주문한 것에 대해 윤 장관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전한데 반해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AIIB 문제도 거론했으며 재무당국 간 협의를 잘 진행키로 했다"고 전함.

## 다. 한·일 관계

- **日 방위백서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 한국 강력 항의(8/5,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2014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를 실음.
  - 또한 일본 방위성은 방공식별구역 표시하는 지도에서 독도에 일본 영공 표시를 했으며, 아직 한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EEZ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표기하고 일본 측 경계선 안쪽에 독도를 배치함.
  -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일본 측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 **한일, 내일 미안마서 외교장관회담...위안부협약 주목(8/8, 연합뉴스)**
  - 외교부는 8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미얀마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네피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외교장관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힘.
  - 윤 장관은 회담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결정과 관련하여 과거사 문제와 맞물린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해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은 북일 합의 및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일관계 정상화 차원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윤병세, 日에 "과거사 진정성, 실천적으로 보여달라"(8/10, 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올 들어 처음 가진 한일 외교부장관회담에서 과거사와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한일 간의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윤 장관은 "오늘 회담이 재개된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국장급 협의를 추동하고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모멘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에 기시다 외무상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장급 협의 채널을 잘 살려나가자"고 답함.
  - 한편 복수의 일본 언론(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은 이번 회담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실마리는 됐지만 여전히 역사인식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양국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함.

## 라. 미·중 관계

- 중국, '남중국해 활동 동결' 제안에 "비현실적" 거부(8/5, 연합뉴스)
  - 홍콩 사우스모닝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5일, 남중국해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남중국해 섬 및 산호초 간석, 석유시추 장비 설치 등의 활동을 중단하자는 미국과 필리핀의 제안을 중국이 거부했다고 밝힘.
  -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한국의 국에 해당)의 이센량 부사장은 이러한 제안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중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누구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함.
  - 중국은 나아가 최근 남중국해 분쟁도서 5곳에 등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긴장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일부 국가들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들은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해 영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한 일치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美, 아프리카에 뒤늦은 '물량공세'...중국 견제 가능할까(8/7, 연합뉴스)
  - 6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지역의 안보와 치안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3~5년 동안 매년 1억 1천만 달러(약 1천 135억원)를 투입하여 유엔과 아프리카 연합의 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함.

-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해 총 330억 달러(약 34조원)를 아프리카에 투자한다고 발표하여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침.
- 그러나 집권 2기 중반기에 접어든 오바마 행정부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 반면 총 투자금액 330억 달러 중 140억 달러를 민간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中당국, 北 접경서 대북지원 활동한 한국계 미국인 조사"(8/8,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북한과 접경한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투먼에서 기독교 비정부기구 활동을 펼쳐온 한국계 미국인 한씨를 붙잡아 3주째 조사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27일(현지시간) 밝힘.
- 한씨는 투먼에서 조선족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NGO '두만강개발계획'을 통해 북한에서 다양한 인도적 사업을 펼치고 있었으며, 라선경제특구 현지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며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공급해 왔던 것으로 알려짐.
- 현지 활동가들은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NGO 활동과 사업을 겨냥한 중국의 대대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한 씨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추측했으나,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전함.

■ 中외교부장 "美, 中의 아태지역 권익 존중해야"(8/10, 연합뉴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9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미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센카구 열도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문제 등에 미국이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함.
-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어느 한 쪽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함.

## 마. 미·일 관계

- "위안부 문제해결 서둘러라" 美, 일본에 압박메시지(8/6, 연합뉴스)
  - 미국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해왔지만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공식 면담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음.
  -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위안부 문제가 미국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악화를 낳고 이로 인해 한미일 공조체제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미국정부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의식하여 여전히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됨.

## 바. 미·러 관계

- 美 해군 미사일 순양함 우크라 인근 흑해 배치(8/7, 연합뉴스)
  -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7일(현지시간), 미 해군이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그리고 ASROC 대함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9천800t 규모의 순양함 벨라 걸프(Vella Gulf)를 흑해 해역으로 진입시켰다고 보도함.
  - 미국 순양함의 흑해 배치 보도에 앞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국경을 따라 배치된 러시아 군의 증가와 그들의 정교함, 훈련, 무장 수준을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실이고 위협이며 분명히 발생 가능한 일"이라고 발언함.
  - 러시아는 미 순양함의 흑해 배치를 러시아에 대한 무력 압박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특이한 동향은 관찰되지 않고 있음.

## 사. 중·일 관계

- "중·일, 11월 APEC계기 정상회담 조율" <일본 언론>(8/4,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은 4일, 중국과 일본이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양자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함.

- 닷케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말 방중한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와 비밀리에 만난 자리에서 얼어붙은 중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후쿠다 전 총리는 중국이 대화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 APEC회의의 주최국인 중국이 각국의 회담 제의에 열린 태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중국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공세 중단 및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등을 거론해왔기 때문에 회담 개최의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 중국 "중위협론은 군비확장 구실" ...日방위백서 비판(8/6,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2014년도 판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양 진출 정책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중국이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일본의) 군사안보정책 조정과 군비확충의 구실로 삼기 위한 것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일본은 사실을 무시하고 이유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중국위협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이와 함께 중국 국가해양국은 지난 달 12일 이후 20여일 만에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지역 주변 순찰에 나서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함.

■ 중국 "일본 전투기 6일 中방공구역 진입, 대응조치"(8/7, 연합뉴스)

- 반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7일, 일본 전투기들이 지난 6일 중국의 동중국해 방송식별구역(CADIZ)에 진입해 장시간 정찰 활동을 벌여 중국 공군이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함.
- 선진커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들이 2차례에 걸쳐 중국 초계기에 접근을 시도했으며 중국은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절제된 조치로 공중 위협에 대응했다"고 주장했으나 양국의 군용기들이 얼마나 가까이 근접비행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이번 사건은 일본 방위성이 발간한 2014년도 판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자의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 및 중국 전투기의 위협적인 근접 비행을 비판한 것에 대해 중일 양국이 공방전을 벌인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향후 양국의 군사적 마찰이 우려됨.
- "中日외교장관 ARF서 회동...정상회담 논의 가능성"(8/10, 연합뉴스)
  - 아세안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있는 미얀마 네피도에서 9일 밤(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01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외교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부장은 기시다 장관의 요청에 따라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며 "왕 부장은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고 양국관계에 존재하는 정치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본이 절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기시다 외무상은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회담 개최 조건을 두고 양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는 미지수임.

## 아. 일·러 관계

- 일본, 러시아 상대 추가제재 발동...푸틴 측근은 빠져(8/5, 연합뉴스)
  - 일본은 지난 3월 중순과 4월말 러시아에 대한 1,2차 제재를 발동한 데 이어 지난 5일, 크림반도 점령·합병과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40여명의 인사들의 일본 내 자산을 동결함.
  - 이 제재에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전(前) 대통령을 비롯한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도자, 러시아 당국자, 그리고 크림 정부 인사 등이 포함되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아베 총리와의 신뢰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
  - 러시아는 이미 지난 달 일본의 3차 제재 경고에 대해 "크게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비우호적이고 근시안적인 행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실제로 제재가 발표되자 일본과의 외무 차관급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대응함.

## 자. 기타

- 日, 유엔인권대표 '위안부 성명'에 "청구권협정으로 해결"(8/7,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함.
  - 스가 장관은 이어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며, 일본 정부는 도의적인 관점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총리의 사죄 편지와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밝힘.
  - 그러나 이러한 스가 장관의 주장은 1950~60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배상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일본 내 시민단체와 학자 등의 지적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밀릴 수 없다" 서방-러시아 벼랑끝 기싸움 돌입(8/8,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는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에서 생산된 일련의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함.
  - 특히 러시아의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미국과 EU의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으며 실제로 이번 조치에 따라 EU가 입게 될 손실은 120억 유로(약 16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EU는 이번 조치를 '예고된 수순'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는 추가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푸틴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출구 없는 대치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신문, '윤일병 사건' 비난... "인권유린 만행"(8/5, YTN)
  - 북한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육군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거론하며 남한 군 당국을 비난했음.
  - 윤일병 타살사건은 미국의 식민지고용군으로서 민족반역과 동족대결의 최악에 찬 길을 걷고 있는 남한 군에서는 필연적 현상이라고 주장했음.
  - 또 남한 군에서 사병에 대한 집단구타와 살인행위는 매일 일어나는 인권유린 만행이라며 연이어 일어나는 총기 난사사건과 자살사건 등은 남한 군이 극도의 전쟁공포증과 구타, 폭행이 만연돼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함.
  
- 북, 살인사건에 즉각 '연좌죄' 적용(8/5, 자유아시아방송)
  - 토대나 성분을 가리지 말고 살인자들은 무조건 1급 정치범으로 취급하라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로 인해 북한의 살인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함.
  - 3월 중순에 있었던 '주민총회'에서의 범죄자들 대부분은 살인과 강도, 강간, 불법영상물과 연루됐는데 그 중 살인과 상습적인 강간범들에게는 사형이, 기타 범죄자들에게는 최소 2년부터 종신형까지의 처벌이 적용됐다고 함.
  - 당시 '주민총회'를 주도한 것은 김정은 제1비서의 2013년 '6월 27일 방침'에 따라 조직된 '6.27 그루빠'로, 소식통들은 6.27 그루빠가 '주민총회'를 조직한 후 북한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고 살인범죄도 거의 사라졌다 할 만큼 줄었다"고 주장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6.27 방침'에 따라 사형판결이 내려진 자는 토대나 성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1급 정치범으로 취급하게 된다"며 "정치범으로 취급되면 연좌제가 적용되어 가족들까지 모두 수용소에 가야 한다"고 전함.
  
- 북한, 국경지역 보안원 대대적 검열... "비리 뿌리 뽑겠다"(8/5,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국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송금과 전화통화 등에 대한 단속을 강도높게 진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주민들을 단속하는 기관들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음.

- 양강도 소식통은 양강도 전 지역에서 검열대상에 오른 보안원들이 도 보안국으로 소환되었다고 전함.
  - 이번 검열은 주로 한국과의 통화나 송금작업 그리고 밀수꾼들의 밀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보안원들이 동조했거나 방조해준 데 대한 것이며, 감시를 해야 할 주민세대들이 최근 탈북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음.
  - 소식통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전하며 보안원 대상의 검열이기는 하나, 보안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전 검열에서 걸리지 않았던 주민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차라리 이번 검열에서 오빠시(주민들을 못살게 뒤텔하는 보안원을 뜻함) 같은 놈들이 다 처벌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 북, 탈북 연고자 '64호 대상' 분류 감시(8/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보위부당국이 최근 탈북자 가족들을 '64호 대상'으로 분류해 송금을 막고자 오지로 추방시켜 밀착 감시한다고 함.
  - 최근 함경남도 함흥에서 국경지방으로 여행 온 50대의 한 행정직 공무원은 보위부가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와 대남 연락선을 통해 이미 탈북자 명단을 상당수 확보해 행불자로 처리되었던 사람들의 탈북여부를 확인해 계층 분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 그는 "탈북자 가족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외딴 오지로 추방시켜 외부와 완전 격리시켜 놓았다"면서 "보위부의 목적은 가족들이 한국으로 나간 탈북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탈북자 가족들이 돈을 받아 일반 주민들보다 잘살게 되자, 주민들 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살아나고, 빈부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면서 주민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임.
  - 북한 보위부 당국은 탈북자 가족들을 외딴 곳에서 농사일과 탄광 일에 종사시키면서도 "경력이 복잡한 사람들도 차별 없이 대해주는 게 노동당의 '인덕 정치' '김정은 인민사랑'의 정치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함.
- 北 조평통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해체해야"(8/7,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7일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받아온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이름만 바꾼 채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했다며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명칭 변경에 대해 "민심의 규탄에 급해진 국정원이 이름을 교체하는 놀음에 매달렸지만 이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보려는 가소로운 추태"라고 비난했음.
- 또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권한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며 "국정원은 유치한 기만극을 걷어치우고 모략과 음모의 소굴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 밀수꾼, 마약밀매에 꽃제비 이용(8/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마약상들이 마약 밀매에 꽃제비들을 고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꽃제비들은 마약인줄 모르고 돈 때문에 손댔다가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연락이 된 함경북도 무산군의 한 주민에 따르면, 북한 쪽 마약 상들은 국경경비대와 짜고 물건을 넘길 수 있지만 중국 쪽 변방대의 단속이 심해져 두만강을 넘길 때는 꽃제비들에게 시킨다고 함.
- 거리와 역전을 떠도는 10대 꽃제비 가운데 날썬 아이들을 골라 마약 보따리를 주어 중국 대방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인데, 만일 성공하고 돌아오면 인민폐 500위안(미화 80달러) 정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 꽃제비 청소년들은 봇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중국으로 나르는데, 중국 변방부대 군인들에게 단속되면 마약 사범으로 걸려 최고 공개처형까지 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 주민, 아편을 가정상비약으로(8/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빙두(얼음, 필로폰)는 마약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데 반해 아편의 경우는 '행복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약이라는 인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임.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함경남도의 한 주민은 "빙두는 마약이지만 아편은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북한주민들이 많다"고 전하면서 "아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촌에서는 매 가정마다 상비약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약품마저 구하기 어려운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배앓이나 치통, 두통 등이 생기면 이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편을 조금씩 복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임.

- 이로 인해 빙두(필로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펴는 북한당국도 아편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한 편이라고 주민소식통은 덧붙였다.
- 이 주민소식통은 또 "아편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자살용 약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면서 "행복한 잠에 빠져들다가 세상을 뜰 수 있는 약이라고 해서 '행복약'으로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 평안북도의 주민 소식통은 "아편을 추출해내는 양귀비를 국가에서 외화벌이 중점사업으로 공을 들여 재배하게 하는 것도 주민들로 하여금 아편은 마약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 한편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양귀비 재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함경남도 주민소식통은 "전 주민이 동원되는 모내기전투 기간에도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학생들은 모두 백도라지(양귀비)재배 농장에 동원되었다"고 전했다.

■ 북, 학교 내 패거리조직 강력 단속(8/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학교 내 패거리 조직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전국의 교육기관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패거리'를 만드는 학생은 해당 당 조직과 사법기관이 협력해 그 부모들까지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 이번 지시에 따른 조사는 학교담당 보위원과 보안원, 매 학교 교장과 청년동맹 지도원이 학급 담임교원들을 상대로 진행하게 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번 지시가 지난 7월 중순 함경남도 단천시 송정고등중학교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패싸움이 계기로 됐으며 이들의 패싸움으로 하여 2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한편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보통 매 학급마다 잘사는 집 자식들로 조직된 '패'와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난한 집 자식들이 모인 '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잘사는 집 자식들로 조직된 '패'의 경우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가 결정되는데 가난한 집 자식들로 조직된 '패'는 주먹이 제일 센 학생이 우두머리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 북한 당국은 1980년대 중반 학교 내 '패'를 중심으로 한 폭력이 지역사회 층들로 번지자 이들을 극형에 처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으나, 최근 들어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패거리 문화가 확산되어 북한 당국이 문제 학생의 부모들까지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2. 북한 인권

- 탈북자출신 조명철, 與 '北인권위원장' 맡아(8/7, 연합뉴스)
  -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출신의 첫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7일 당직인선에서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장에 임명되었음.
  - 조 의원은 "국회 내에서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관련 법 등 관련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국이나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이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 외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음.
  - 또한 탈북자 27명이 최근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위기에 처해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조 의원은 오는 8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왕이(王毅) 외교부장, 귀성쿤(郭聲琨)公安부장 앞으로 보내기로 함.
  - 조 의원은 "탈북자나 북한인권,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북한 주민의 배고픔 등을 외면한 채 결렁결렁한 대화 또는 교류나 하는 것은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아니다"면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의 적극적 해결 노력을 촉구했음.

## 3. 탈북자

- 미 입국 탈북 난민 총 171명(8/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는 난민입국 현황자료에서 지난 7월 4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음.
  - 이로써 2014년 회계연도에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8명이며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는 모두 171명으로 늘어났음.
  -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4년 회계연도에서 올 7월말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올해 1월에 1명, 3월에 2명, 4월에 1명, 그리고 7월에 4명 등 모두 8명임.

- "탈북학생 두 명 호주서 어학연수"(8/6, 자유아시아방송)
  - 호주 시드니공과대학(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부설 언어연구 기관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두 명에게 어학연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탈북자 연구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이들은 한국 정착 탈북대학생 두 명을 선발해 각각 1만 2천 (호주) 달러를 장학금으로 지원했음.
  
- '북 직파 간첩 사건' 일반재판 진행...11일 첫 공판(8/6, 연합뉴스)
  -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 씨의 첫 공판이 11일 열릴 예정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홍씨의 여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진행과 관련된 논의로 장기간 심리가 지연됐다"며 "11일 첫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음.
  - 앞서 재판부는 홍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이 장기화할 것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반복,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음.
  - 홍 씨는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재판부의 결정이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했으며,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기소 뒤 5개월이 지나도록 공판이 열리지 못했음.
  -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 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음.
  
- 국제 인권단체들 '중국,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해야'(8/7, 미국의 소리)
  -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중국 정부에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에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음.
  - 이 단체는 한 살짜리 어린이를 포함한 탈북자 4가족 20여 명이 최근 중국 산둥성과 윈난성에서 공안에 체포돼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수용소에 수감됐다고 밝히며 이들의 송환을 우려하며 국제법 위반을 지적함.
  - 이 단체는 5천 명을 목표로 지난 달 28일 시작한 서명운동에 6일 현재 2천2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고 밝혔음.

- 한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도 6일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운동을 시작했으며, 중국 내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촉구했음.
- 탈북자 저축금 정부가 두 배로 불러준다(8/8, 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정착 탈북자가 저축한 만큼의 금액을 정부가 적립해주는 '미래행복통장'이 내년에 신설되어 최대 금액을 꾸준히 붓는다면 2천4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적립금은 반드시 탈북자가 번 근로소득에서 나와야 하며, 만기 지급금은 주거·교육·사업 등 목적에만 쓸 수 있음.
  - 또 탈북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 취업장려금 지급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최대 7년까지로 늘렸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탈북학생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신설됐음.
- 함경북도서 주민 16명 탈북해 북한 당국 '비상'(8/8, 데일리NK)
  - 함경북도 지역에서 최근 16명의 주민이 탈북을 감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중양에서 이런(주민 탈북)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충격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음.
  -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에 탈북한 16명의 주민은 세 가족으로 구성됐고, 한국에 탈북자 가족을 둔 것도 아니어서 탈북 위험인물로 분류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무리를 지어 탈북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보안 당국은 발칵 뒤집혔음.
  - '관련자들을 색출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는 보안원들은 밀수꾼이나 무직자 등의 집을 방문, 거친 말을 해가면서 이번 탈북을 방조한 주민을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함.
  - 또한 당국이 더 충격을 받은 부분은 이번에 탈북을 감행한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탈북을 암시하는 말을 했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이제야 파악했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중양에서 나온 인민보안부 고위 간부들은 담당 보안원들에게 '왜

이들을 철저히 감시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총화작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소개했음.

- 탈북 사건에 대한 주민들은 놀라워하는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중앙 검열이 진행되는 기간에 보란 듯이 갔으니 주민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탈북 사건으로 인해 당국의 감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다만 일부 주민은 '가자고 결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가고야 마는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겠냐'는 말도 하고 있는 상황임.

■ '출발점이 다른데...' 영어에 우는 탈북 대학생들(8/10, 데일리NK)

-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는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26개 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 대학생 1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6명(74.5%)이 공인 영어능력시험 점수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힘.
- 시험을 본 나머지 26명의 점수도 토익(TOEIC) 기준으로 평균 658점에 불과하고, 900점 이상인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800점대는 2명이었음.
- 응답자 대다수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이른바 '명문대' 소속도 많았지만 영어 실력은 이에 걸맞지 않아 전문가들은 중·고교에선 탈북자들을 위한 학습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만, 대입 이후에 이들은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된다고 지적했음.
- 북한에서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도 체계적 지원이 부족했던 탓으로, 이는 결국 취업실패로 이어져 탈북자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길을 제한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최경일 탈북민취업지원센터장은 "탈북 학생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하거나 지원책을 마련한 대학이 거의 없다"면서 "정부 역시 탈북 대학생 관련 통계조차 내지 않는 등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한국 학생들과 출발점이 다른 탈북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음.

#### 4. 이산가족

- 우윤근 "5·24 제재 철회 등 3가지 제안"(8/7,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대북·통일정책을 전했다.
  - 우 정책위의장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성사 및 정례화, 금강산 관광재개 및 남북 당국 회담 재개 등을 제안했음.
  - 야당의 이런 제안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현안은 통일부에 맡겨달라. 통일준비위에서는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제안에 아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함.
  - 이에 대해 우 정책위의장은 야당을 비롯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이 통일준비위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는데도 통일부 장관이 '오버'를 했다며 지적했으며,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건어찬 통일부 장관의 태도는 오만하고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음.
  
- 통일부, '北 AG참가 지원-5·24해제' 與주장에 신중론(8/7,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설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없다"면서 "인도적 문제이니 실무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아시안게임 참가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은 별개 사안"이라고 사안 간 연계는 경계했음.
  - 또한 현 시점에서의 추석 계기 상봉 추진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 "8월 말쯤 실무접촉을 한다고 가정하면 (명단교환 등 절차를 거쳐) 9월말이나 10월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5. 남북자

- "北, 9월상순 납치문제 1차 조사결과 통보"<요미우리>(8/5, 연합뉴스)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다음

달 상순 일본에 통보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음.

- 양국 정부의 물밑 조율 결과, 북한이 첫 조사결과 보고를 '9월 상순에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으며, 북측 조사결과와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이달 하순 이후에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 일본 정부는 공식 인정한 납북 피해자 12명과, 납북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 중 특히 납북 가능성이 농후한 약 30명의 정보를 전달했으며, 먼저 이들 40여 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할 것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음.

■ 일본, 납북자 추가 귀국 대비 지원 확충키로(8/6, 미국의 소리)

- 일본 정부는 5일 열린 각료들로 구성된 납치문제대책본부 회의에서 납북자들의 추가 귀국에 대비해 지원 방안을 확충하기로 결정함.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귀국할 일본인 납북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정리했다며, 각료들에게 귀국 납북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재구축하고 착실하게 운용하라고 지시했음.
- 새 지원 방안은 납북자들이 고령화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65세 이상 납북자가 귀국할 경우 본래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의 상당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했으며, 납북자들이 대도시에 정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안도 포함됨.
- 납북자들이 귀국한 뒤 영주 의사를 표명할 때까지 지급하는 체재지원금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납북자의 친족이 북한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북한 방문 비용도 지원, 귀국 납북자의 자녀가 일본어를 배우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함.
-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을 2015년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입법 형태로 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임.

■ "일본, 납치조사결과 청취 위한 북일회담 추진"(8/7, 연합뉴스)

- 일본 NHK는 일본 정부가 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1차 조사결과를 청취하기 위한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음.
- 향후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으며, 북·일 간 협의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달 첫째 주로 예정된 개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 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음.

- 북, 납치 일본인 조사 벌써 끝내(8/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실제적인 조사사업은 적당히 끝내버렸으며, 더 이상의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도당 조직부 부원들과 각 동사무소 소장들이 인민반장들을 통해 귀국자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았을 뿐 특별히 귀국자들을 부르거나 직접 만나서 조사한 일은 없었다"고 전함.
  - 이러한 조사도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보름동안만 진행됐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고 함.
  - 소식통은 '국가보위부'나 '인민보안부'와 같은 사법기관들은 일본인 조사 제에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고, 각 도당 조직지도부와 지역 동사무소가 인민반장들을 통해 형식적으로 조사하는데 그쳤다고 밝힘.
  - 하지만 실태조사를 하는 동안 생활이 어려운 귀국자 출신 주민들에게는 식량을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등 일정한 관심은 보였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번 조사는 순수 귀국자들과 일본인 출신 귀국자들을 엄격히 구분해 진행됐다"며 "일반 귀국자들은 만나지 않았지만 일본인 출신 귀국자들은 당 간부들이 일일이 가정들을 방문해 돌아보았다"고 지적했음.
  - 또한, 귀국자 남편을 따라 북한에 온 일본인 아내들 중에서 나이가 많아 치매에 걸린 여성들은 일본으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임.
- "日, 北에 인도적지원 검토중...납북자 귀국이 조건"(8/9, 뉴스1)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에 관한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보고를 토대로 납북자 귀국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함.
  -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 특별위원회의 보고가 9월 둘째 주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북한이 성과를 낼 경우의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말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지원 물품은 쌀 등의 식량과 의료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통신은 지원 규모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공조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우려를

배려해 소규모에 그칠 전망이다며 과거 한국과 미국의 대북 지원 사례를 참고해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함.

- 일본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는 별도로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의 추가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임.

■ 유엔, 북한 정부에 납치 사건 47건 해명 요구(8/9, 미국의 소리)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9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이 북한에 납치 사건 47건에 대한 해명을 공식 요청했으나 북한 당국은 전혀 확인해주지 않았음.
-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실무그룹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이 기간 동안 27건의 실종 사건에 대해 북한에 해명을 요구했음.
- 또 이보다 앞서 북한에 해명을 요구한 사건이 20건이라고 밝히고, 총 47건 가운데 9건은 여성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47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음.
- 지금까지 북한 정부에 의해 생사가 확인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음.
- 한편, 실무그룹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의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문제를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음.

##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 7. 대북지원

- 중국 체포 캐나다인 부부, 대북 인도지원 활동(8/6, 미국의 소리)
  - 최근 국가기밀 절취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된 캐나다인 부부는 단둥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온 기독교 선교사로 확인됨.

- 중국 당국은 5일 캐나다인 케빈 가레트 씨와 줄리아 가레트 씨 부부가 군사와 국방과학 관련 기밀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힘.
- 캐나다 등 서방언론들은 중국 당국이 기밀절도죄로 외국인을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가레트 씨는 단둥을 방문하는 북한인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며 옷과 시설 장비, 강냉이(옥수수)를 제공하고 자연재해 때 긴급 지원품을 보내는 등 다양한 대북 지원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당국은 현재 가레트 씨 부부의 북한 관련 활동이나 선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아가페, 평양 대체에너지 온실 준공(8/8,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구호단체인 아가페는 지난 6월 말 평양시 역포구역 협동농장에서 추진하던 대체에너지 온실 건축이 마무리되고 준공식이 열렸다고 전함.
- 대체에너지 온실은 동물 배설물에서 나오는 유기가스를 이용한 난방시설로 겨울에도 각종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온실로, 이 온실의 건설을 통해 계절에 상관없이 배추나 마늘 등도 생산이 가능해짐.
- 아가페는 동물농장에서 나오는 배설물로는 양질의 유기비료를 생산해 채소재배에 이용할 계획이며, 온실 지붕에는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 농장에서 필요한 온수를 공급하는 한편 풍력발전기도 세워 온실과 돼지농장에서 필요한 전력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8. 북한동향

- 駐이탈리아 미군 병사 2명의 로르니아 임신부 강간사건 거론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수의 무리, 세계의 특등 범죄집단'이라 비난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살인강도 미군을 제 소굴로 쫓아버려야 한다'고 강조(8.5,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71호(8.7),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 교체에 대해 "오히려 내부기능 강화" 등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워 보려는 추태"라고 해체 선동(8.7,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